



이태종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1997년 제작 상영된 공상과학영화 '가타카(Gattaca · 감독 앤드루 니콜)'의 제목은 사람의 DNA를 구성하는 네 종류의 염기인 구아닌(G)·아데닌(A)·티민(T)·시토신(C)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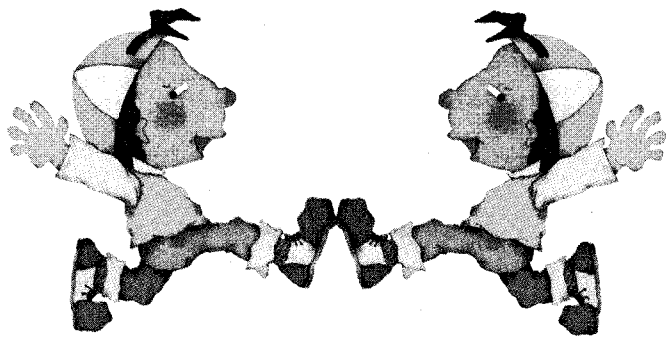
줄거리는 발달한 생명공학 위에서 유전인자를 잣대로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미래의 이야기다.

미래 사회는 인종·성차별 대신 유전자 차별이 제도화한다. 유전학적으로 우수인자를 가진 사람은 사회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고,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은 하층민 생활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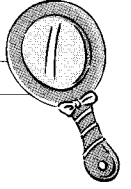
주인공 빈센트는 최고의 우주항공회사 가타카에 취직해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열성 인자를 갖고 태어나 '부적격자'로 처음부터 하층계급에 편입된다.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꿈을 접지 못한 빈센트는 유전자 암거래상의 중개로 일류 수영 선수로 활약하다 사고로 반신 마비된 존의 유전자를 사들인다. 결국 새로운 인물 제롬 머로우로 탄생해 가타카에 무난히 입사한 빈센트는 우여곡절 끝에 우주로 떠난다.

섬뜩하지만 있을 수 있는 미래 사회 얘기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명공학



인간복제,
피할 수 없는 선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기술을 토대로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는 1997년 2월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복제한 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일어난 생명 복제 붐은 이제 인간 복제로까지 옮겨 붙었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미국의 한 종교단체(신도 수 5만5천명)가 만든 인간 복제 회사인 '클로네이드'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연속해서 두명의 복제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했다.

클로네이드가 복제 아기의 DNA 샘플 등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그 진위를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손오공(孫悟空)이 요괴를 무찌르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털을 뽑아 도술로 분신을 만들던 수백년 전의 상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손오공은 중국 명나라(1368~1644) 때 오승은(吳承恩)이 지은 장편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원숭이다.

생명공학 기술은 이처럼 생식세포뿐 아니라 체세포만 가지고도 원본 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계를 통틀어 복제기업만도 4천개에 달할 정도다.

사람들은 이제 부모나 애인, 존경하는 위인이나 좋아하는 연예스타까지도 복제로 되살려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 복제를 통해 인간의 장기를 생산해 대체하고, 불치병인 각종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 만큼 인간의 행복 추구에 큰 업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간 복제는 인간

의 발생부터 존엄성과 윤리, 종교적 가치관 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인간을 복제한다면 인류는 암수의 어울림이 없이 하는 무성생식으로 대를 잇게 된다. 따라서 자연도태가 일어나지 않아 종의 다양성에 위기를 맞을 것이 뻔하다. 진화론에서 보면 열성은 자연도태되고 우성이 살아남아 종의 다양성이 유지된다.

종교의 가치관 재정립도 필요하다. 인간이 조물주의 생명 창조 권능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 복제는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부모의 체세포를 복제해 태어난 아기에 대해 부모 대접을 해줘야 할지 형제로 지내야 할지도 관심사다. 수천년 동안 생식 수단이었던 성행위나 임신·출산 등의 개념도 흔들린다. 여성은 남성 없이도 홀로 아기를 가질 수 있고, 남성은 여성과 성 접촉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 복제는 대체 장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는 생명을 소모품 정도로 여기게 해 생명의 존엄성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동물과 인간 등 이종간 유전자 조합에 이용될 수도 있다.

최근 돌리의 사망에서 보듯 복제 동물의 경우 노화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유전병이 관찰된 바 있다. 복제 인간에게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질병이 나타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럼에도 인간 복제는 현실이고, 과학기술의 발전 차원에서선 악이 아니다.

다만 악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PPKK